

화순서 세계산림치유대회 열린다

내년 10월 29일부터 3일간
만연산·하니움스포츠펀터서
미·독·호주·핀란드 등 10개국
국내외서 1만2000여명 참가



구충곤 화순군수가 '세계 산림치유대회'가 열리는 '만연산 치유의 숲'을 점검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내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만연산 치유의 숲과 하니움스포츠펀터에서 '2021 세계 산림치유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계 산림치유대회는 우리나라 산림치유 전문 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산림치유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화순 대회가 첫 개최다.
화순 대회에는 미국·독일·호주·핀란드 등 10개국의 산림 관계자 700여명과 국내 1만1300명 등 1만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세계가 숲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치유활동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독일·핀란드 등 산림 선진국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 대회가 화순에서 열릴 주목된다.
화순 대회에서는 산림치유·숲해설 경연대회와 치유포럼, 치유음악회, 화순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최 장소인 만연산 치유의 숲은 오감연결길,

치유의숲 센터, 동구리 호수공원, 수만리 생태숲 공원으로 이어진 지역명소 전체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SNS, 인터넷 블로그 등에 널리 알려져 매년 수십만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10월 '2021 세계 산림치유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활동을 벌였다. 또 최근 실무협의회를 열어 행사 일정 및 실무기구 구성 등을 논의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지역민들에게 치유의 축제를 열어 위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회 개최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국내 산림치유 향유 인원이 10만 명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장인 신원섭 충북대 교수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산림치유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산림 휴양·치유는 생활이고 더욱 중요한 일상이 될 것"이라며 "산림치유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산림레상스 시대'를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나주시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수상

광주·전남 유일...일자리위원회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성과 인정



나주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고용안정과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최근 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개인·민간기업·지자체·공공기관을 선정해 주어진다.
올해는 총 20곳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나주시는 광주·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앞서 나주시는 전남도 일자리 창출부문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나주시는 '배전기능 인력'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학연 협력-인재양성-취업단계별 직업훈련 및 교육체계 구축'과 '일자리지원센터 맞춤형 취업 연계'도 지역 고용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우수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또 '버스운전원 양성'은 영세 중소기업과 구직

자 모두를 만족시킨 우수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가 육성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참신성을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읍성권 1km구간에 청년 창업거리를 조성해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발전의 핵심동력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에너지수도 나주시의 우수한 일자리 정책을 전국으로 알린 매우 뜻 깊은 성과"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앞으로도 취업을 꿈꾸는 청년층의 도전과 꿈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채취권 분쟁 장흥 회진 새조개 채취 당분간 어려울 듯

전남도 관리수면 지정 신청 반려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장흥 회진연안의 '새조개' 채취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전남도가 채취권 분쟁(광주일보 12월16일자 7면)을 이유로 관리수면 지정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28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도는 장흥군 회진면 신덕어촌계가 신청한 178ha에 대한 새조개 채취를 위한 '관리수면 지정 신청'을 잠수기조항

내 협의체 간 분쟁을 이유로 지난 18일 반려했다. 전남도는 새조개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잠수기 조합 내 '상조회', '선진회' (선장 모임체), '다진회' (다이버모임) 등 3개 협의체간 이익금 배분에 따른 동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관리수면지정 신청 서류를 해당 어촌계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당초 이달 말부터 기대를 모았던 장흥 회진면 새조개 채취는 내년 2-3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관리수면 대상 해역이 김

양식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새조개 채취 지정이 이뤄진다해도 김 채취시기(12월-익년 3월)에 겹쳐들어 김양식 어민들과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산읍 4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관산 삼산연안 100여ha의 새조개 채취를 위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새조개 자원량 실태조사'를 의뢰해 자원량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국가기록관리 우수 국무총리 표창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국가 기록원이 실시한 '2020 국가기록관리 포상'에서 군(郡)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정부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함평군이 국가기록관리 평가에서 전국 군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함평군 제공>

국가기록원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기록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 공로가 인정된 각 단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 4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등 기록관리 업무 기반 ▲기록물 이관 등 업무추진 ▲서비스 및 업무개선 등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함평군은 그동안 추진했던 서고관리시스템 도입, 원스톱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업무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안정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행정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록물 운영기록 관리, 비대면 교육 공간 마련 등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공로도 인정받았다.
특히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함평군기록관 건립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

과 운영 전문화를 위한 기록연구사 등의 전담인력을 채용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록물 총괄 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공식 개관한 함평군기록관은 옛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부지에 연면적 589.66㎡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향은·향습 공기순환 시설, 가스식 자동 소화 시설 등의 최신식 보존 시스템을 갖췄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신속한 함평군기록관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공공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역사 전부를 잘 보존하고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강진 병영에 돼지불고기거리

350m 구간 조형물·포토존 등 설치

강진군은 병영면 일원에 돼지고기 관련 음식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돼지불고기거리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전남도 주관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받은 도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들여 거리 대표 조형물·안내판, 이용자 쉼터, 벽화, 포토존 설치, 노후 외벽 정비 등 시설환경을 개선했다. 돼지불고기거리는 병영서가네 식당부터 세류교까지 약 350m 구간이다.
강진군은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암, 장흥, 강진읍 진입 방향의 거점 3곳에 병영 돼지불고기거리를 안내하는 거리 안내판을 설치했다. 병영 회진교차로에는 돼지 조형물도 설치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은 최근 병영면 일원에 돼지불고기거리 조성사업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강진군 제공>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